

2008 함께라서 좋아요

(3) 무용가족 김미숙씨네

20년 한 길... 한국무용 내일 연다

김미숙하나무용단을 이끌고 있는 한국무용가 김미숙(39)씨는 욕심이 많다. 그녀와 함께 작업하는 작곡가와 연출가들은 그녀의 꿈에 연재나 허를 내뿜는다.

2004년 전국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 아쉬움이 많았던 김 씨는 지난해에는 '회, 소'라는 작품으로 결국 대통령상을 거머쥐었고, 주역을 맡았던 조카 이세라(31)씨는 연기상을 수상했다.

김 씨에게 조카 세라씨는 마음 더 놓을 수 있는 편한 친구이자, 함께 무용의 꿈을 키워가는 동반자다. 세라씨에게 이모 김 씨는 스승이자, 언니이자, 엄마 같은 존재다.

"어릴 때 이모가 춤을 추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됐어요. 지난해 생각지도 못한 큰 상까지 받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김 씨는 22살 때 한국무용학원을 열었고 당시 유일한 제자가 바로 세라씨였다.

"당시 광주는 한국무용의 불모지였어요. 무용학원은 대부분 발레학원이었거든요. 처음 학원을 열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우리 대로 수개월 동안 수강생이 한명도 없어요 세라 한명을 놓고 감수를 하곤 했죠."

당시 무안 일초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세라씨는 학교가 끝나면 통학열차 비둘기호를 타고 매일 광주에 와 3시간씩 연습을 한 뒤 이모와 함께 잠을 자고 새벽 5시엔 일어나 다시 무안으로 내려가는 생활을 계속했다.

올해 두 사람은 더욱 바빠 움직일 계획이다. 우선 해외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고구려와 조선시대 춤을 선보이고 하와이 공연을 다녀온 무용단은 올해 하와이 공연과 함께 한국전력의 초청으로 필리핀 세부 공연을 추진중이다. 또 필리핀 마닐라와 쿠웨이트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꿈은 바로 중앙무대에 진출하는 것. 예산 등의 문제가 벽차기는 하지만 하반기 중 국립극장이나 국립극악원 등 대형무대에 대



한국무용가 김미숙(사진 왼쪽)씨와 조카 이세라(31)씨는 함께 무용단과 학원을 운영하는 든든한 동반자다. /위키키기자 jrwi@kwangju.co.kr

이모-조카 손잡고 작년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해외 공연·국립극장 등 중앙 진출 준비 분주

통령상 수상작품인 '회, 소'를 올릴 계획이다.

"서울에서 광주의 발레와 현대무용은 알아주지만 한국무용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광주 한국무용의 지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전에 정동극장 등 소규모 무대에 선적은 있지만 대형무대는 처음이라 걱정도 되지만 자신감을 갖고 준비할 계획입니다."(김미숙)

김 씨는 올해 연변예술대 초빙교수를 맡아 한 달에 3~4차례는 중국에 머문다. 또 연변예술대 관계자는 한국에 와서 연변춤을 가르치게 되며 오는 4월 광주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상 수상 기념공연은 연변예술대 무용팀과 합동공연으로 꾸릴 예정이다.

현재 무용단 부단장과 학원 운영을 맡고 있는 세라 씨는 세종대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칠 계획이다.

"학원 운영이나 무용작품 짜는 데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세라가 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돼요. 요즘엔 저의 제안이나 지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세라화(化)'해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 가더군요. 한국무용은 장르상 표현에 한계가 있어 작품 짜기가 참 어려운데 둘이서 함께 머리를 맞대다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죠."

김 씨는 조카 세라씨와 함께 한국무용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꿈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김미숙기자 mekim@kwangju.co.kr

논의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사장·이사회 등 재단 운영체제의 효율화 ▲총감독 선임 방법 개선 및 재단 연구기획 기능 강화 ▲광주비엔날레의 대외 소통 확대 방안 등 세 축으로 나눠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이뤄진다. 박신의(경희대)·이영철(계원조형예술대)·박정기(조선대)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며, 김지연(광주·전남문화재단 사무국장)·이태호(전주문화재단 기획실장)·지형원(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부위원장)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 개혁작업 착수

15일 개혁방안 대토론회

지난해 '신정아 사건'으로 위상이 실추된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혁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재단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 호남본부 세미나실에서

서 '광주비엔날레 개혁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재단의 관리체계를 단일 이사장제로 바꾸는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단은 3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해 '신정아 씨 파문'으로 불거진 총감독 선임 방법, 직제 개편 등 재단과 비엔날레 운영 전반에 걸쳐 개혁 방안을

100주년 행사 풍성한 한국 문단

김유정·유치환·임화·김기림 등 문인 탄생 100주년

현대시도 탄생 100주년...다채로운 기념행사 준비



유치환



김정환



김유정



김기림

올해 한국 문단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설가 김유정, 시인 유치환·임화·김기림 등의 탄생 100주년인데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녀에게'(1908년 발표) 이래로 한국 현대시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문인들이 가운데에는 '동백꽃' '봄봄'으로 유명한 작가 김유정(1908~1937)이 대표적이다. 김유정은 가난한 하층민의 삶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생각하게 만들고, 해학성과 향토색이 짙은 작품들로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

'모래톱 이야기'로 유명한 김정환(1908~1996)은 민중의 관점에서 부정한 자본, 타락한 권력, 천박한 친일 세력을 비판하는 소설을 여러 편 발표했다.

'참마' 유치환(1908~1967)은 1931년 등단 후 기독교적이고 감각적인 경향을 배제하고 인간의 정신과 생명적인 요소를 중시한 '생명과' 선두주자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대표작 '깃발'이 수록된 시집 '청마시조'를 비롯해 '생명의 시' 등 왕성한 활동으로 10여 권에 이르는 시집을 남겼다. /이민기기자 emlee@kwangju.co.kr

시인이자 평론가 임화(1908~1953)는 일제 강점기에 활발한 작품 창작과 문학 연구를 통해 민족문화 발전에 공헌했으며, 김기림(1908~?)은 정치음, 이상 등과 함께 시단의 모더니즘 경향을 이끌었으나 6.25 전쟁 이후 남북 또는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문학계는 근대비평의 초석을 다진 임화·김기림·최재서·백철 등 비평가들을 조명하는 행사를 고려 중이다.

농민 문학의 선구자 이무영은 '흙의 노래'라는 작품을 통해 땅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의지를 잘 드러냈으며, 평론가 최재서는 주지주의 문학비평가로 활동하며 한국 문학의 비평계를 이끌었다.

한편 올해는 한국 문학을 대표하고 있는 고은 시인의 최대 연작시집 '萬人譜'(萬人譜·총 30권)가 21년 만에 완간될 예정이다. 고은 시인은 등단 50주년을 맞아 직접 그린 서양화 작품으로 전시회를 계획 중이다.

'즐거움 편지'로 유명한 황동규 시인은 등단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설가 한승원, 시인 김수영·조지훈·김지하·신대철·강근호 등도 나란히 등단 40주년을 맞는다.

한국 현대시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나

한중연 '현대시어 빈도 사전' 출간

한국 현대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다', '이', '하다', '없다' 등의 단어도 시어로 많이 쓰였다. 한국학 중앙연구원(한중연)은 1923년에서 1950년 사이에 창작된 한국 현대시 작품을 대상으로 시어를 분석한 '한국 현대시어 빈도 사전'(한국문화사 펴냄)을 2일 출간했다.

이 시기에 창작된 8천200여 편의 현대시 작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명사 '나'가 총 1만1천343

회 쓰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현대시가 대부분 화자의 정서를 읊은 서정시의 범주에 들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다'(5천91회), 관사 '이'(4천652회), '하다'(4천444회), '없다'(4천405회), 의존명사 '것'(4천167회), 관사 '그'(4천95회), 대명사 '너'(3천915회) 순으로 뒤를 이었다.

명사 가운데는 '밤'(3천90회), '속'(2천618회), '소리'(2천615회), '때'(2천582회), '마음'(2천485회) 등이 자주 등장했다. 명사 '사랑'과 동사 '사랑하다'는 각각 1천205회, 661회 사용돼 59위와 12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박수근 유화 '빨래터' 재감정 의뢰

최근 신생 미술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한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크기 72x37cm)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감정이 4일 착수된다. 서울옥션은 3일 한국미술감정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옥션 심미성 이사는 "소장자가 감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했다"며 "논란을 조

기에 불식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미술감정협회는 서양화의 경우 통상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감정 신청을 접수해 금요일에 감정 결과를 내놓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5억2천만원에 낙찰된 뒤 최근 아트레이드 창간호의 의혹제기 기사로 논란을 빚고있는 박수근의 유화 '빨래터'의 진위가 이르면 금주중에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p>영화보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메가박스</p> <p>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p> <p>1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최고급관 2관 P.S.아이러브유 (15세) 3관 헐리와 그레텔 (12세) 4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 5관 가면 (18세) 6관 더 시크릿 (15세) 7관 내셔널트레저 (12세)/꿀벌대소동 (전제) 8관 색즉시공시종 (18세)/황금나침반 (전제) 9관 내 사랑 (12세)</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위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엔터 시네마</p> <p>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마교의임의장난김백화점 (전제)/황금나침반 (전제) 2관 내사랑 (12세)/용의주도미스신 (15세) 3관 아이러브유 (15세) 4관 나는전설이다 (12세)/내셔널트레저 (12세) 5관 기다리다미쳐 (15세) 6관 색즉시공2 (18세) 7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p> <p>www.entercinema.co.kr</p> <p>* 넓고 편안한 국내-해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환호시람 영화시람 *예매: www.joycoco.com / 1588-7941</p> <p>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뒷편)</p> <p>1관 마교의임의장난김백화점 (전제)/용의주도미스신 (15세) 2관 색즉시공2 (18세)/헐리와그레텔 (12세) 3관 엘빈과슈퍼밴드 (전제)/황금나침반 (전제) 4관 황금 나침반 (전제) 5관 P.S. 아이러브유 (15세) 6관 꿀벌대소동 (전제)/가면 (18세) 7관 내셔널트레저 (12세) 8관 내사랑 (12세)/아메리칸 갱스터 (18세) 9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10관 기다리다 미쳐 (15세)</p> <p>*호남 최대 주차장 *메입심야 상영합니다</p> <p>콜롬버스점 (107)점점 상영중 상영시간표 별도 (11시 or 2시)~연</p>	<p>색깔있는 영화시람 *www.cinusa.com / 1544-0070</p> <p>씨너스 전대</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내사랑 (12세)/아거스트러쉬 (전제) 2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3관 내셔널 트레저 (12세) 4관 꿀벌대소동 (전제)/아메리칸갱스터 (18세) 5관 P.S. 아이러브유 (15세) 6관 나는 전설이다 (12세)/색즉시공2 (18세) 7관 헐리와그레텔 (12세)/황금 나침반 (전제)</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p> <p>*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북자 사무(오전9시~개폐시) ARS 전화예매 1544-0070</p>	<p>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 / 1588-9101</p> <p>무등극장</p> <p>총장로 1가 ☎ 232-9106</p> <p>1관 용의주도 미스신 (15세) 2관 P.S.아이러브유 (18세) 3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4관 꿀벌대소동 (18세)/색즉시공2 (18세) 5관 엘빈과슈퍼밴드 (전제)/내셔널트레저 (12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헐리와그레텔 (12세)/가면 (18세) 8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아거스트러쉬 (전제) 9관 황금나침반 (전제)</p> <p>*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세로문기름 *www.primuscinema.com/www.jelldinema.co.kr</p> <p>제일시네마</p> <p>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2관 가면 (18세) / 내사랑 (12세) 3관 황금나침반 (12세) 4관 색즉시공2 (18세) 5관 아이러브유 (12세) / 내셔널트레저 (12세) 6관 나는 전설이다 (12세)</p> <p>*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